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루카 16,25)



〈부자와 라자로〉, 레안드로 바사노, 1595년

[제1독서] ..... 아모 6,1ㄱ-4-7

[화답송] ..... 시편 146(145),6ㄷ-7.8-9ㄱ.9ㄴㄷ-10ㄱㄴ  
(◎ 1ㄴ)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 1티모 6,11ㄱㄷ-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

[복음] ..... 루카 16,19-31

[성가 안내]

- 입당성가: [2] 주 하느님 크시도다
- 봉헌성가: [511] 미약하온 우리 제물
- 성체성가: [163] 생명의 성체여  
[344] 영성체
- 파견성가: [65] 예루살렘 복되고

**너는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를 나쁜 것들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19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20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21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22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23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24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25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를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26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27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28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29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30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31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 †묵상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악과 레베카가 어떻게 혼인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많은 낙타와 온갖 선물을 주며 아들 이사악의 신붓감을 데려오라고 보냅니다. 종은 샘물 곁에서 자신의 낙타 열 마리와 자신에게 물을 길어 주는 소녀가 있다면 그 소녀가 주님께서 보내 주신 주인의 며느리라 여기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레베카가 나타나 낙타들과 종에게 물을 길어 줍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느님이고 이사악은 예수님이며 레베카는 교회에 비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혼인함으로써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먼저 낙타 열 마리를 먹일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10’ 은 계명을 의미하고, 모든 계명의 완성은 ‘사랑’입니다(로마 13,10 참조). 사랑의 실천만이 하느님의 가족이 되고 하느님 나라의 상속권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는 비록 모세 오경과 예언서를 읽으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우물에 빠졌는데 안 구해 준다면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굶주린 라자로가 문 밖에 있는데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으니 그는 스스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님을 드러내며 산 것입니다. 이와 달리 라자로를 개들에게 원하는 대로 자신의 몸을 핥게 하였습니다. 사랑은 내어 줍니다.

제1독서에서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우리 주위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걱정 없이 흥청댈 수 있다면 스스로 사랑이 없음을 드러내며 지옥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삼용 요셉 신부)

## “단지 이민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사랑의 실천에 관한 문제입니다 -

### 이민자에 대한 관심은 우리 모두에 대한 관심

교황이 제시한 주제에 관한 견해는 일곱 가지다. 먼저 교황은 ‘무관심의 세계화’에 관한 성찰을 시작으로, 전쟁이나 불의, 차별의 값을 치른 이들이 “가장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빈곤한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민자, 난민, 피난민과 인신매매 희생자들은 배제의 상장이 됐다”며 “그들은 (...) 종종 모든 사회악의 원인으로 간주되며 부정적으로 고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쓰고 버리는 문화’에 계속 물려설 경우 윤리적 쇠락의 직면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일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모두에게도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들을 돌보면서 성장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어쩌면 오늘날 중요하게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숨겨둔 우리의 일부분에 목소리를 주게 됩니다.”



### 참된 사랑은 되갚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합니다

“이민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실천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사회와 우리 인류의 삶의 가치에 대한 얼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교황은 덧붙였다. 교황은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노예로 삼는 모든 거짓 우상을 폭로하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받는 사람의 열린 태도를 강조했다.

“가장 고귀한 사랑 실천의 형태는 되갚을 수도 없고 어쩌면 감사할 수조차 없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십시오. 사랑에서 연민(compassione)으로 이르는 감정은 “우리가 어려움에 놓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활기찬 자극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 인류애의 가장 민감한 심금을 울리는” 고통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고통을 가라앉히고 치유해야 한다. “연민을 갖는다는 것은 오늘날 사회가 우리에게 억누르라고 강요하는 너그러움에 자리를 내어줄을 뜻합니다. 타인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빈곤이 아니라 풍요로 이끌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인간적인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 꼴찌가 첫째 되리라

교황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은 그 다음”을 정당화하는 세상의 논리와 “개인주의의 정신”을 전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주의의 정신은 “우리의 이웃을 향한 일종의 무관심을 키우는 데만 비옥한 토양”이며, 이웃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고 순전히 경제용어로만 바라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소심하고 냉소적으로” 만든다. 교황은 이런 감정들이 종종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사회의 보잘것없는 이들 앞에서” 자란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복음의 논리에 따르면 꼴찌가 첫째 된다. “이민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꼴찌를 첫째 자리에 두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토는 ‘꼴찌가 첫째 되리라!’ 입니다.”

### 사람을 중심에 두십시오

교황은 예수님 사명의 핵심이 모두가 삶의 선물을 충만하게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정치 활동에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모든 사목활동에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영성적인 차원을 포함해 인간의 다양한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이민 문제가 제기하는 도전은 네 개의 동사로 요약됩니다.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통합하기’ 입니다. 하지만 이 동사들은 이민자와 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동사들은 환대받고 보호받고 증진되고 통합되어야 하는 실존적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를 향한 교회의 사명을 묘사해줍니다.”

### 시대의 표징을 읽기 위한 이민자들

쓰고 버리는 문화에서 해방되는 것과 회심은 가난한 이들, 이민자들, 난민들의 모습을 거친다. “하느님의 계획에 한층 더 상응하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마음의 변화다. “이민자들, 특히 가장 약한 이들은, ‘시대의 표징’을 읽을 수 있게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들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회심으로 부르십니다. 배타주의, 무관심과 쓰고 버리는 문화에서 벗어나라고 부르십니다.” <<https://www.vaticannews.va/>>





# 한인성소 기도의 날 Korean American Day of Prayer



제4회 동중부 한인성소 기도의 날 (Korean American Day of Prayer)이 9월 21일(토) 성 정 바오로 성당(주임 백인현 안드레아 신부)에서 개최되었다. 성 정 바오로 성당의 성소 후원회가 주관하고 알링톤 교구의 성소국(Fr. Michael Isenberg, Office of Vocations)과 다문화국(Ms. Bridget Wilson, Office of Multicultural Ministries)이 함께 준비한 이 행사에는 약 100여 명의 주일학교 학생과 학부모 및 교우들이 참가했다.

올해 특강에는 김인 신부(Fr. Joe Kim, OFM Conv.), 김요셉 신부(Fr. Joseph Kim), 강두영 신부(St. Paul Chung Church), 정 크리스티나 수녀(Salesian Sisters of Saint John Bosco), 이 데레사 수녀(Salesian Sisters of Saint John Bosco), 최지경(Candidate of the Sisters of Bon Secours), 진진 이글레시아(Seminarian at St. Charles Borromeo Seminary in Philadelphia, PA) 등 6명의 신부와 수녀, 그리고 1명의 신학생이 참여했다.



강두영 신부는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이 부르심”이라며 “우리가 즐겁지 않을 때 받아들이는 힘,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기도로 이겨내는 힘은 가정에서 알게 모르게 부모님의 말씀과 모습 속에서 배우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부모로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직접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성소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부모로서의 성소가 먼저”임을 강조했다.



서부에서 온 김인 수사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느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므로 어떤 기도를 할지 잘 해야 한다”며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각자가 최고의 내가 되기를 원하시므로 ① 주님 제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세요, ② 주님,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저도 바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정 크리스티나 수녀는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생일 파티에서 만난 한 수녀님을 통해 본인과 전혀 어울리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던 '수녀로서의 삶'에 대해 기도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 만남 이후 매일 직장 점심 시간 중 미사에 참석하고 기도하던 중에 ① 하느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고 있구나 ② 하느님은 내가 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구나를 깊이 깨닫고 되었고 현재의 수도 공동체를 만나 지금은 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이날 행사 중에는 본당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로 봉사했던 최지경 헬레나 수녀가 모든 참가자들과 함께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이끌었다. 최수녀는 성소를 깨닫고 현재의 수도 공동체에서 열심히 기쁘게 생활하고 있다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소의 부르심에 “두려워 하지 말고 - 'Do not fear' 담대히 응답하자”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알링톤 교구 필리핀계인 진진 이글레시아 신학생이 참여해서 본인의 성장 과정을 나누었다. 진진 신학생은 주일 미사와 청소년 활동을 하면서 ‘모범적인 가톨릭 자녀’로 성장했지만 가톨릭으로서의 삶과 신앙에 대한 의심과 혼돈이 찾아온 경험을 전했다. 그러나 혼돈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참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았고, 대학에 있는 캠퍼스 선교(Catholic Campus Ministry) 모임 등을 통해 하느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깊이 하고 신앙을 키워 지금은 ‘치과의사’의 꿈을 넘어 ‘사제’의 삶을 꿈꾸며 신학교에 입학하여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Q&A 시간에는 아이센버그 신부(Fr. Michael Isenberg), 강사 신부·수녀들과 참가 학생 및 학부모·교우들이 참여하여 열린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미국과 한국 신학교·수녀원의 차이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입학에 관한 나이 제한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 등으로 다른 점도 있겠지만 사제·



수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같다”며 나이 제한도 각 신학교나 수도 공동체가 다르므로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나에게 맞는 수도 공동체를 찾기 위해 공동체 설립 정신과 삶에 대해 알아 보고 직접 방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저녁식사 후 교구 성소국장인 아이센버그 신부(Fr. Michael Isenberg) 집전으로 뜻 깊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미사를 드리며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 그리고 감사를 드렸다.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인 ‘성소’는 우리를 사제 성소, 수도 성소, 결혼 성소, 독신 성소로 이끄시며, 이러한 하느님의 부르심에 개인,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를 깊이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 교육부 주관 대학 진학 세미나

대학 진학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세미나(교육부 주관)가 지난 22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열렸다. 웨어팩스 고등학교 교사이자 입시 전문가인 김 다니엘(요셉) 형제는 대학 입학 준비와 관련해 학부모와 자녀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등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었다.

## 성 미카엘 (Michael) 대천사

Feast | September 29



Guido Reni's Michael (in Santa Maria della Concezione church, Rome, 1636)

히브리어 이름 미카엘(-Mikha'el)에는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라는 뜻이 있다. 성 미카엘 대천사는 교회가 전례에서 공경하는 세 천사(가브리엘, 라파엘, 미카엘) 중 하나이다. 그는 구약성경에서 2번, 신약성경에서 두 번 언급되었다 이 대천사는 주로 천상 군대의 장수, 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보호자, 특히 임종자들의 수호자로 나타난다.

흔히 미카엘 대천사는 악랄한 용과 싸우는 칼로 표현되며, 성 미카엘 대천사 축일(9월 29일)은 로마(Roma)의 살레리아노 가에 세워진 성 미카엘 대성당 봉헌 기념일이다. 1970년에는 그의 축일이 가브리엘과 라파엘 대천사의 축일과 합쳐졌다. 여성형 이름은 미카엘라(Michaela)이다.

## 추석 대잔치 제1회 미세스 안나 선발대회 수상자들



### 미세스 안나

- 진 박정숙 안젤라
- 선 김홍자 아네스
- 미 광경옥 포티나

### 인기상

- 최순내 루시아
- 박종분 데레사
- 김영인 엘리사벳



# 26<sup>TH</sup> SUNDAY in ORDINARY TIME

September 29, 2019

## Lazarus and the Rich Man



<오마리아 주일복음/바오로딸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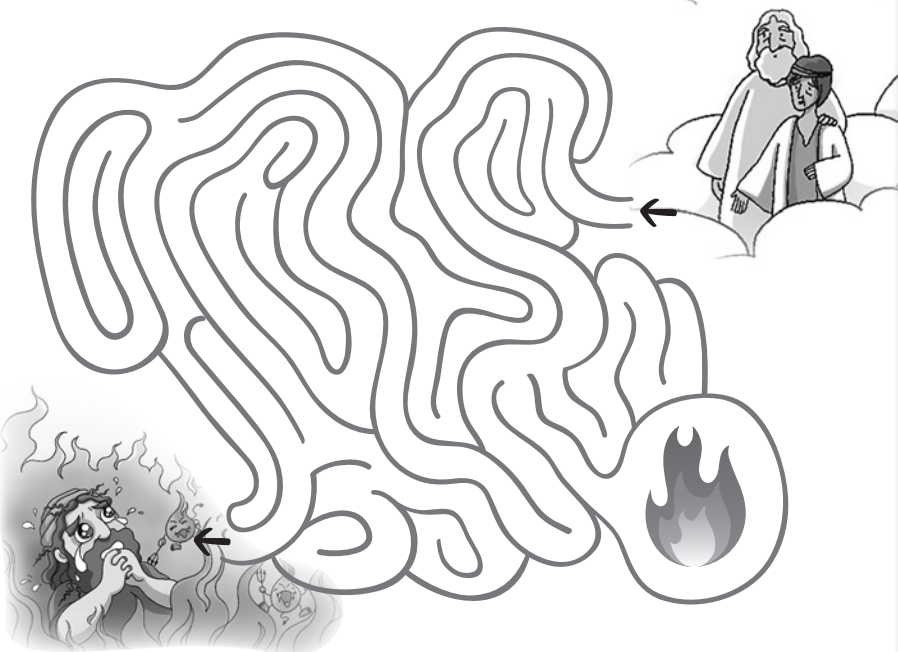
In today's Gospel Jesus tells a parable about a rich man and a poor man. While they were alive, the rich man had everything he wanted. He feasted every day and was never hungry. Meanwhile Lazarus, the poor man, lay in the rich man's gate, always hungry and sick. Even the dogs came to lick the sores on his body.

Once the men died everything changed. The rich man went to Hell. He got what he deserved for thinking only himself while he was alive. Lazarus, on the other hand, went to be with Abraham in Heaven. He had suffered so much while he was alive, but now he was perfectly happy.

The rich man wanted a drop of water to cool his tongue but Lazarus couldn't help him. **He found out what happens if you only think about getting the best for yourself.** What does this story make you want to do for the poor and suffering people around you?

<<https://www.thekidsbulletin.com>>

Can Lazarus cross between Heaven and Hell?  
See if the maze *will* let him cross.



### Confirmation Schedule

THU <b>10/3</b>	& THU <b>10/10</b>	• Family Interview with Fr. Kang
SAT <b>10/12</b>		• Confession, 10 am
SAT <b>10/13</b>		• Rehearsal, 1pm-2pm
WED <b>10/16</b>		• Confirmation Mass, 7pm

### Sunday School Volunteers

- **Positions:** Catechists(K-12<sup>th</sup>), Assistant Catechist, Office Assistant
- **Question?** Contact parish office or Sunday school office

### For CYO Students - RALLY 2019



- WHEN** Sunday, October 20, 2019. 12:00pm-8:00pm
- WHERE** Bishop O'Connell High School, Arlington, VA
- WHO** CYO 9<sup>th</sup>-12<sup>th</sup> grade
- COST** \$25.00 per participant includes dinner & a t-shirt
- HOW TO SIGN UP** Contact your CYO Teacher

**1 주일학교 1학기 화재 대피훈련**

- 일시: 9월 29일(일) 오전 11:10 - 11:30
- 장소: 하상관과 하상관 주변(하상관 지하 및 체육관 포함)
-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하상관 출입이 금지됩니다. 자녀들의 안전을 위한 훈련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제2회 본당 승격 25주년 행사 기념 마린 골프대회**

- 일시: 9월 29일(일) 오후 1시
- 장소: South Riding Golf Club
- 문의: 허진 세바스찬 (703)376-1372

**3 병자 영성체**

- 일시: 10월 4일(금)
- 신청: 조영인 형제 (703)264-0060

**4 성체강복**

- 일시: 매월 첫째 금요일(10월 4일) 오후 7:30 미사 후 많이 참석하시어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레지오 마리아 야외 행사**

- 일시: 10월 6일(일) 오전 11:30(나눔터)
- 대상: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가족 동반)
- 문의: 김병국 다니엘 (571)265-2862

**6 구역 임원교육**

- 일시: 10월 6일(일) 오전 11:30(B-1,2)

**7 청소년 사도 임원회의**

- 일시: 10월 6일(일) 오후 1시(A-3,4)

**8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10월 6일(일) 오후 1시(B-1)

**9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2019-2020년도 교리교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교감 선생님 혹은 보좌 신부님께 연락바랍니다.
- 문의: 윤정 보일 교감 (703)371-3589

**10 성당 묘지 구입 (20% 할인)**

- 일시: 10월 5일(토) 오전 11시
- 장소: Fairfax Memorial Park 사무실
- 문의: 홍의훈 요셉, 연령회 (703)966-8206

**11 불우이웃 돕기 5K 걷기 / 7.5K 달리기**

- 일시: 10월 12일(토) 오전 7:30
- 장소: Burke Lake Park (Shelter A)
- 신청: 10월 6일(일)까지, 미사 후 친교실
- 신청비: 1인 \$15 / 2인 \$25 / 한 가족당(3명) \$30
- 신청비 전액은 불우이웃 돕기에 쓰입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김 소피아 (703)314-0905

**12 과달루페 성지 순례단 사전 모임**

- 일시: 10월 13일(일) 오전 11:30(B-1,2)
- 문의: 김 요안 비안네 (703)830-5473

**13 위령성월 죽음 준비 학교(성 요셉 아버지 학교 주최)**

- 일시: 11월 3일(일), 11월 10일(일) 오후 12:30 - 4시
- 주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마당 (Well Living & Well Dying)
- 등록: 10월 6일(일) - 10월 22일(화)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참가비: 1인당 \$30(점심 제공) /선착순 40명
- 문의: 김 베로니카 (703)864-1236

**14 성물부 정기 세일 안내**

- 10월 목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성물부에서 세일을 하니 많은 애용 바랍니다.

**15 SPC 청년 성서모임**

- SPC 청년 성서모임에서 함께 배우고, 느끼고, 나눔 그룹원과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창세기/탈출기/마르코/요한)
- 성서를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분, 냉담종이신 분, 지친 삶에 위로와 따뜻한 나눔이 필요하신 분, 사랑의 말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대상: 20대 ~ 30대 청년 (로고스, 라파엘, 바오로)
- 신청방법: 온라인 - bit.ly/spcible 오프라인 - 본당 사무실에서 등록
- 마감: 2019년 10월 13일까지
- 문의: 대표 봉사자 조다운 아녜스 (703-965-2988)

**교황님의 9월 기도 지향**

**보편 지향: 대양의 보호**  
정치인, 과학자, 경제인들이 바다와 대양의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기도합니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9월 29일(일)	연중 제26주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8시), 주일학교 화재 대피훈련(오전 11:10), 본당 승격 25주년 행사 기념 마린 골프대회(오후 1시)
30일(월)	성 예로니모 사제 학자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6시)
10월 1일(화)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기념일	평일미사(오후 7:30),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성령 기도회(오후 8시), 하상 성인학교 (하상관)
2일(수)	수호천사 기념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바오로 소공동체(오후 8시)
3일(목)	연중 제26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4일(금)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	병자 영성체, 하상 성인학교, 평일미사 (오후 7:30), 성체강복(평일미사 후), 회장단 회의(오후 8:20)
5일(토)	연중 제26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하상 한국학교, 첫 토요일 성모심신(오후 6:15, 성당)
10월 6일(일)	연중 제27주일	구역 임원교육(오전 11:30, B-1,2), 청소년 사도 임원회의(오후 1시, A-3,4), 성모회 임원회의(오후 1시, B-1), 레지오 마리아 야외행사(오후 1시, 나눔터)

**2차 헌금**

“사랑 나눔 캠페인”(워싱턴 한인 복지센터 주최) 후원을 위한 2차 헌금. 갑작스런 질병과 실직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25주간: **잠언 26-31, 갈라 6**

**KACM TV 하이라이트**

9월 26일(목) 오후 5:00-6:00  
9월 27일(금) 저녁 8:00-9:00  
9월 29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산티아고는 길: 남매가 같이 걷는 산티아고 길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9월 22일(연중 제25주일)

주일헌금	\$8,039.00
교무금	\$8,762.00
교무금(크레딧카드)	\$5,160.00
특별헌금	\$0.00
2차헌금	\$0.00
<b>합계</b>	<b>\$21,961.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 주차장 → 성당 서틀버스를 이용해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본당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	구역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정명금(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녜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타),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경(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희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젬마), 최홍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버나), 장미래(아녜스), 한영광(스테파노), 김성래(안나)

♥ **군복무자**

-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마카베), 안성호(요한), 구분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또), 손범기(펠릭스),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윤박창(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진(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엘(마카렐라), 최용승(프란치스코), 에스더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마사시오), 제임스 리(호산), 안병진(다니엘)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카엘) DMD, PC 703-825-1191	<b>허진 변호사</b>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b>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b> 이경태 요셉 703-785-4494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안 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워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b>뉴잉톤 오토바디</b>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철타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암 보험·메디케어 장기 간호 보험</b>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b>페어팩스 부동산</b>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b>와니 건축</b>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원 통증·재활</b>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b>소아전문 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b>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b>HYN 부동산</b>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b>Commercial 김준부동산</b>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테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박정훈(요한) 치과</b>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b>제니스김 부동산</b> Keller William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b>대학 진학 컨설팅</b> 대니얼 김(요셉) FCPS 교사 / 브라운대 입시 사정관 703-662-1371
<b>워싱턴 노인 복지센터</b>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b>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b>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b>글로벌 가정의학과</b> 방문진료, 무보험 환영 윤명희 (헬레나), FNP 703-935-9226	<b>경희 바울 한의원</b>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b>Well Skin Care</b> 오픈기념 특별 이벤트 애난테일, 한국일보 맞은편 703-627-7123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재무설계</b>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b>DK 건강 보험</b> 메디케어, 생명보험 메디케이드 신청 도와드립니다.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b>CORE 물리치료</b>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